

과업중심 지도와 명시적 지도가 한국 고등학생 영어 파생어 강제 학습에 미치는 영향

장서연* · 정현성**

교사, 대경중학교 ·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Chang, Seo Yeon & Chung, Hyunsong (2023). The effects of task-based instruction and explicit instruction on the learning of stress patterns in English derived words by Kore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22(4), 223-248.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different instruction methods on the learning of stress patterns in English derived words by Korean high school students. It involved 81 second-year students from a specialized high school, divided into three groups: an experimental group with task-based instruction, a comparison group with explicit instruction, and a control group. Over the 10-week experiment, both the task-based and explicit instruction groups incorporated elements of stress patterns involving four stress-shifting suffixes (-ic(s), -ity, -tion, -ial) into their lessons. Pre- and post-pronunciation tests and surveys were conducted for all three groups, with an additional delayed-post survey administered to the task-based and explicit instruction groups. The experiment concluded with a delayed-post test conducted two weeks after the post-test. The study's findings reveal that the task-based instruction group showed the most significant improvement in intelligibility in the delayed-post test. Meanwhile, the explicit instruction group was shown to be highly effective in improving their accuracy in both the post- and delayed-post tests. Additionally, posi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students' accuracy and intelligibility. Lastly, in terms of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pronunciation and instruction, the task-based instruction group tend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onunciation in communication, while the explicit instruction group showed an increased interest in learning pronunciation between the pre- and post-surveys.

[task-based pronunciation teaching/explicit pronunciation teaching/
stress/intelligibility/accuracy/과업중심 발음 지도/명시적 발음
지도/강제/이해가능성/정확성]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2015 개정 영어교육과정과 더불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영어 교육과정에서는 영어를 ‘다양한 언어 및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 되는 언어’로 규정하여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영어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는다(교육부, 2022). 이처럼 영어교육에 있어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자와 그 메시지를 전달받는 청자 간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강혜정, 2012; 도주영, 2006; 유현지, 이은주, 2015; 천태은, 1997).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의도한 발화와 청자의 이해가 일치할 수 있는 이해가능한 발음(intelligible pronunciation)과 청자의 이해도(comprehensibility)가 언어 형태가 정확하고 원어민 같은(native-like) 발음보다 더 중요한 요소(민다영, 정현성, 2018; 정미라, 2010)로 간주된다. 발음이 불분명할 경우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최윤정, 2005), 발화에 있어 최소한의 이해가능한 발음이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한다(안현기, 2008). 이러한 이해가능하고(intelligible) 이해하기 쉬운(comprehensible) 언어 구사는 제 2언어를 배울 때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Jenkins, 2006). 따라서 올바르게 체계적인 발음 교육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과 정확성(accuracy)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다(Chung, 2010). 즉, 발음의 정확성과 이해가능성이 항상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이해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EFL 상황인 한국과 같은 환경에서 정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올바르게 많은 발음의 화석화(fossilization)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EFL 환경의 한국에 있어 이해가능성과 정확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질 수 있는 올바른 발음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는 체계적인 발음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김중훈, 2013; 문승재, 1997; 박주경,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발음 이해가능성과 정확성을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어는 음절박자언어(syllable-timed language)인데 비해 영어는 강세박자언어(stress-timed language)이다. 이로 인해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영어를 배울 때, 모국어와 다른 강세와 리듬을 익혀야 하므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Byun, 2014). 즉, 정확한 단어 강세를 인식하고 발음하는 것은 한국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기본이다. 특히 복합형태소로 구성된 파생어(derived words)는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긴 단어로 인식되어 학습자들이 정확한 강세 위치를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강세를 잘못된 음절에서 발음하는 등 영어 발화 시 불분명한 발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강순자, 2005; 신현욱, 1999; 이용모, 2002). 영어에서 단어 강세는 일정한 규칙으로 적용

되며 그중 접미사가 첨가된 파생어의 경우 강세 규칙이 더욱 명확하고 예외가 드물다(김현아, 2017). 따라서 파생어 강세 규칙을 초등 혹은 중등 교육과정을 통해 다룬다면 한국인이 영어를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정확한 파생어 강세 학습에 초점을 두어 유의미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실제 목표어를 사용해 의사소통하는 과업중심 발음 지도와 기존의 명확하고 직관적 지도유형인 명시적 발음 지도를 구분하여 각각의 지도 방식에 따른 파생어 강세 학습 효과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할 중점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중심 지도와 명시적 지도는 한국 고등학생의 영어 파생어 강세 발음의 이해가능성과 정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한국 고등학생의 영어 파생어 강세 발음의 이해가능성과 정확성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3. 과업중심 지도와 명시적 지도를 받은 한국 고등학생의 영어 발음과 발음 지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파생어와 강세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닌 형태적으로 복잡한 파생어는 학습자들에게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강순자, 2005). 파생어의 강세 유형을 예측하기란 용이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접미사 유형에 따른 단어 강세 변화를 알아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Yavaş, 2020): 강세 수반 접미사 (stress-bearing (attracting) suffixes), 강세 중립 접미사 (stress-neutral suffixes), 강세 이동 접미사 (stress-shifting (fixing) suffixes).

Ghorbany(2011)는 영어 파생어 강세에 대한 EFL 학습자들의 인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난이도에 있어 두 유형의 파생어 강세(강세 이동 접미사, 강세 중립 접미사)의 유의한 차이를 조사하였다. 피실험자들은 주어진 단어들과 접미사가 붙은 같은 단어들의 강세를 읽었다. 그 결과 강세이동형 접미사가 강세중립형 접미사에 비해 학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eschner와 Whitley(2004: Celce-Murcia et al., 2010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접미사 부가(suffixation)로 인한 모든 강세 위치 변화의 90퍼센트는 다음의 4가지 접미사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al, -ity, -tion, -ic(s).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도 강세변화 접미사 중 예외가 가장 적은 ‘-(i)al,’ ‘-ity,’ ‘-tion,’ ‘-ic(s)’ 네 가지 접미사를 초점으로 접미사 바로 앞 음절 자리로 강세 위치가 이동되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연구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고자 한다.

2. 이해가능성과 정확성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 이해도(comprehensibility), 외국어 말투(accentedness)는 신뢰할만한 지각 평가 구인 도구(reliable perceptual evaluation constructs)로서 발음 연구에 자주 사용되는 요소이다(Derwing & Munro, 1997, 2015; Munro & Derwing, 1995).

표 1
이해가능성, 이해도, 외국어 말투(Derwing & Munro, 2015, p. 5)

이해가능성	화자의 의도한 발화와 청자의 이해 간의 일치도
이해도	발화를 이해할 때 청자가 겪는 수월함 또는 어려움
외국어 말투	서로 다른 음성 언어 집단을 구분시켜 주는 특정한 발음 패턴 평가

Munro와 Derwing(1995)은 세 가지 요인이 제 2언어 음성에서 일정하게 독립적인 차원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제 2언어 발화에 대한 청취자의 외국어 말투 평가가 이해가능성 또는 이해도 평가와 일관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것은 비록 화자가 강한 외국어 말투를 가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이해도도 높고 이해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발음 지도의 목표는 외국어 말투 줄이기보다는 서로 다른 모국어 배경이 있는 화자들과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한 이해가능성 개발에 목표를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학습자들의 과생어 강세 발화의 이해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발화의 이해가능성 평가를 위해 전사법(transcription method)을 주로 활용한다. 평가자들이 제 2언어 학습자의 발화를 듣고 이해한대로 모든 단어를 옮겨 적어 정확하게 옮겨진 단어의 백분율로 이해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Derwing & Munro, 1997; Munro & Derwing, 1995).

한편 언어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정확성(accuracy)이란 문법 규칙 학습과 같은 기능의 습득을 강조하는 뜻으로 널리 이해되어 왔다(Nunan, 1989). Brumfit(1984)에 따르면 정확성은 교사에 의해 학습자가 언어의 형식 혹은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Skehan(1996)은 정확성을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규칙 체계에 얼마나 부합되도록 발화되는가와 관련하여 정의를 내렸다. 즉, 학습자가 해당 언어의 규칙을 바르게 지켰을 때 정확성이 있는 발화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배두본(2002)은 정확성이란 언어의 사용(use)이 아닌 언어의 쓰임(usage)으로서 언어 형태의 정확함을 의미하며, 학식 있는 원어민 화자가 표현하는 말이 그 표준이라고 하였다. 즉 정확성의 기준은 학식 있는 원어민 화자의 체계적인 언어수행인 것이다. 이와 같이, 언어의 정확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확성은 문법적 오류가 거의 없이 언어의 형태에 맞게 발화하는 능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표준형 또는 모형’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 모형은 같은 언어 공동체 안의 사람이라면 누

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의 것이어야 한다. 과생어 강세와 관련해서는 접미사의 종류에 따른 과생어의 강세가 정확한 음절에 구현되었을 때 정확성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3. 발음 지도

1) 명시적 발음 지도와 암시적 발음 지도

발음을 지도하는 방법은 크게 명시적 지도 방법(explicit instruction)과 암시적 지도 방법(implicit instruc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양형욱, 민남숙, 2005). 명시적 지도 방법은 목표 발음에 대한 지식을 교사가 미리 설명하고 학습자가 그 지식에 대해 의식하도록 하는 강설(strong)형태 접근방식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암시적인 지도 방법은 발음이나 언어적 지식을 교사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채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학습을 촉진시키는 약설(weak)형태의 접근 방식이다(민찬규, 2002).

2) 과업중심 발음지도

과업중심 발음지도는 제 2언어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제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지도법으로, 과업중심 언어교수법의 원리를 제 2언어 발음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유효민, 2020). 과업중심 발음교수법의 목표는 모국어 억양을 완전히 벗어나 원어민에 가까운 완벽한 제 2언어 발음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이해가능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발음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Mora & Levkina, 2017). 이때 과업은 학습자들이 제 2언어 발음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발음 형태(phonetic form)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Gurzynski-Weiss 외(2017)는 인지적으로 더 복잡한 과업이 제 2언어(스페인어) 모음 발음에 초점을 맞춘 언어 관련 담화(language-related episodes: LRE)를 도출할 수 있는지와 모음 발음 정확성(vowel production accuracy)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더 복잡한 과업을 완료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더 많은 수의 LRE를 생성했다. 그러나 학습자가 과업 완료에 소비한 시간을 제어할 때, 인지적으로 더 복잡한 과업보다 인지적으로 단순할 경우 LRE의 비율이 비록 유의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더 높았다. 모음 생성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인지적으로 단순한 과업보다 인지적으로 복잡한 과업에서 좀 더 목표값에 가까웠으며(targetlike), 더 나아가 발음 발달에 있어 발음에 초점을 맞춘 LRE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는 과업이 상대방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음 중심 LRE의 발생을 향상시킴으로써 발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효민(2020)은 경기도 부천시 모 중학교 2학년 학생 11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약 4주간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전통적인 발음 수업을 받는 통제집단, 의사소통 과업 활동을 활용하여 발음 학습을 한 실험집단 총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음소 /l/-/ɫ/, /p/-/f/를 구별하는 학습을 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집단 모두 목표 음소발음능력에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나, 의사소통 과업 활동 집단 학습자들의 영어 발음 능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으며, 또한 그들의 정의적 영역과 관련해서도 최소대립쌍 단어에 포함된 목표음소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변별하여 발화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의사소통 과업활동이 학습자들의 영어 발음능력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자료 및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에 문법 및 어휘 등에 적용되었던 과업중심교수법이 제 2언어 발음 학습에 효과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 2언어 발음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교수 방법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은 과업중심 발음지도를 설계하여 그것이 학습자들의 발음 정확성과 이해가능성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평가자

본 연구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7개 반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크게 과업중심 발음 지도가 이루어지는 실험집단(39명), 명시적 발음 지도가 이루어지는 비교집단(33명), 마지막으로 아무런 발음 지도가 없는 통제 집단(9명)으로 구분하였다. 학습자의 영어 능력은 평균적으로 하위~중하위 수준이 주를 이룬다. 연구 대상의 과생어 강제 발음을 평가하는 평가자로 본 연구자인 비원어민 한국인 영어교사 1명과 영어권 출신 원어민 화자 3명을 지정하였다. 한국인 영어 교사는 학습자들의 과생어 강제 발음의 정확성(accuracy)을 평가하였고, 원어민 화자들은 학습자들의 과생어 강제 발음의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을 평가하였다.

2. 연구도구

1) 사전·사후·지연 사후 과생어 강제 발음 평가지

본 연구의 목표 접미사인 '-ic(s)', '-ity', '-tion', '-ial' 4개 유형에 따라 어근과 과생어를 한 쌍으로 하여 각각 두 쌍씩 8문항을 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목표 접미사와 관련 없는 다른 유형의 과생어(filler words) 두 쌍인 4문항을 추가로

포함하여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주어진 기본단어(base words)를 교사가 읽어주면 학습자는 그와 연관된 과생어를 직접 읽어보게끔 진행하였다(부록 1). 이때 기본 단어들은 수업에서 다룬 영어 교과서를 기반으로 ‘직업과 진로(job and career)’와 ‘해외 여행하기(travel abroad)’ 두 개의 주제와 연관된 단어들로 선정하였다. 단어의 순서는 무작위로 배열하였다(표2).

표 2
과생어 강세 발음 평가지 문항 구성

평가 영역	문항 유형	문항 예시	문항 수
초분절 음소 영역	단어 강세	다음 주어진 오른쪽 열의 단어를 발음하세요. (왼쪽 단어 발음은 들려줍니다.) 1. creative - creativity	12

2) 단어 강세 수업 지도안 및 활동지

일주일에 2회 50분씩 총 4주간 8차시 영어 수업으로 진행된 발음지도 수업은 과업중심 발음 지도가 이루어지는 실험집단과 명시적 발음 지도가 이루어지는 비교집단 간 수업 지도안 및 활동지가 다르게 구성되었다(표 3). 이때, 명시적 발음 지도 내 실시한 모든 연습 활동에서는 교사의 명시적 설명과 피드백을 학습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과업중심 발음 지도에서 사용한 과업에는 목표 과생어를 포함하여 학습자들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연스럽게 해당 언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마지막 정리(language focus)단계에서 교사-학습자 및 학습자 간 과업 중 일어난 오류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었으나, 목표 과생어 규칙에 대한 교사의 명시적인 설명은 없었다.

3) 사전·사후·심화 사후 설문지

사전 및 사후 설문지의 전체 문항은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일곱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부록 2). Brown(2000)이 주장한 정의적 요인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 자아방어심, 모험시도, 불안, 감정이입, 동기, 흥미 7가지 정의적 요인을 설문지로 구성한 전승숙(2008)의 연구를 기반으로 발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문항을 재구성한 유현지와 이은주(2015)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표 4는 사전·사후 설문지의 문항을 각각 평가 항목, 문항 번호, 해당 문항 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3
발음 지도 수업 계획

	명시적 발음 지도 (비교집단)	과업중심 발음 지도 (실험집단)
1-2차시 주제 및 목표 언어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시청을 통한 발음의 중요성 인식 제고 - 분절음 소개 - 초분절음(강세/리듬/ 억양) 소개 - 접미사 및 파생어 강세 소개 - 강세 전환 접미사 소개 - 접미사화(suffixation)에 따른 파생어 강세 위치 변화 규칙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과 진로에 관한 영상시청 및 생각나눔 - 해외국가, 여행에 관한 영상 시청 및 생각 나눔 - 주제(1.직업 2.해외 여행) 및 필수 단어 소개
3차시 목표 언어 규칙 복습 단어읽기를 통한 반복연습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미사화(suffixation)에 따른 파생어 강세 위치 변화 규칙 복습 - 기본 단어(base word)와 파생어(suffixed word)를 비교하여 발음 연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격차 과업 1 (짝) What is your job? 특정 직업과 관련된 단어 및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정보를 주고받으며 상대방의 직업을 맞추기
4-5차시 목표 언어 규칙 복습 문장읽기를 통한 반복연습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미사화(suffixation)에 따른 파생어 강세 위치변화 규칙 복습 - 기본 단어와 파생어가 포함된 문장을 비교하며 발음 연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격차 과업 2 (짝) 20 Questions: Guess My Job! 직업과 진로에 관련된 단어 및 내용이 포함된 20개의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실제 꿈의 직업을 맞추기
6차시 단어읽기를 통한 반복연습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단어(base word)와 파생어(suffixed word)를 비교하여 발음 연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해결 과업 1 (모둠, 전체학급) 여행 중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친구 4명이 간 나라, 항공기, 여행 일수 결정하기
7차시 문장읽기를 통한 반복연습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단어와 파생어가 포함된 문장을 비교하며 발음 연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해결 과업 2 (모둠, 전체학급) 여행 중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친구 4명이 간 피해야 할 숙소, 식당, 관광지 선택하기
8차시 게임 등을 통한 강세 발음 복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어 강세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 빙고 게임 - 구글 번역기 음성 인식을 활용한 문장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리 - 학습자들의 과업 중 일어난 오류 다루기 - 과업에 대한 반추 및 자기 평가

표 4
사전·사후 설문지 문항 분류

평가 항목	문항 번호	문항 수
자아존중감	1-2	2
불안	3	1
자아방어심	4	1
모험시도	5-6	2
동기	7-8	2

흥미	9-10	2
발음에 대한 인식	11-16	6
총계		총 16 문항

과업중심 발음 지도 집단과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화 사후 설문지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부록 3). 크게 발음 수업과 활동의 만족도 및 발음수업과 활동의 효과성, 더 나아가 느낀 점에 대해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때 7문항은 사전·사후 설문지 문항과 동일한 폐쇄형 리커트 5점 척도 선택형 문항이고, 3문항은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이다. 다음 표 5는 평가 항목, 문항 번호, 해당 문항 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5
사후 심화 설문지 문항 분류

평가유형	평가 항목	문항 번호	문항 수
폐쇄형문항	수업 만족도	1-3	3
폐쇄형문항	수업 효과성	4-7	4
개방형문항	수업에 대한 나의 생각	8-10	3
총계			총 10문항

3. 자료 분석 및 처리 방법

1) 발음 평가

학습자 발음의 정확성과 이해가능성을 사전·사후·지연 사후 평가 총 3번을 거쳐 채점하였다. 정확성은 올바른 위치에 강세 발화를 기준으로 본 연구자가 0(inaccurate)과 1(accurate)로 세 번에 걸쳐 채점하였다. 이해가능성은 3명의 원어민 화자가 학습자의 발화를 듣고 전사(transcribe)한 뒤, 실제 목표 과생어와의 일치 여부에 따라 0(unintelligible)과 1(intelligible)로 채점하였고, 이때 한 명이라도 0으로 채점한 경우 해당 발화는 이해가능하지 않음(0)으로 평가하였다.

2) 통계 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2.0과 R(R Core Team, 2023)이다. 평균과 표준편차와 더불어 각 집단 내 발음 평가(사전·사후·지연 사후)간 차이와 사후 및 지연 사후 발음 검사 내 세 집단 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교차분석 후 R을 활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시하여 각각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다 더 명확히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학습자 발음의 이해가능성과 정확성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은 리커트 척도(1점에서 5점)로 환산하였다. 각 집단별 사전 및 사후 응답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후 응답에 대한 세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이때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 문항의 경우 비모수 통계인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심화 사후 설문 응답에 대한 두 집단(과업중심 발음 지도 집단과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설문 응답 통계 처리 시, Levene의 검정 결과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문항의 경우는 비모수 대응 표본 검정인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심화 사후 설문지 개방형 질문의 경우 학습자가 응답한 내용을 공통된 범주로 정리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집단 내 이해가능성 및 정확성 능력 비교

1) 과업중심 발음 지도 집단

먼저 과업중심 발음 지도 집단 내 발음 평가와 이해가능성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과 같이 분석 결과 $\chi^2 = 25.978$, $p = .000$ 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과업중심 발음 지도 집단 학습자들은 사전·사후 간의 이해가능성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지연 사후 검사에서는 사전 검사보다 14.31%p, 사후 검사보다는 14.53%p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평가 간의 차이를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R(R Core Team, 2023)을 이용해 'rcompanion'패키지(Mangiafico, 2023)에 포함된 'pairwiseNominalIndependence'기능을 활용해 교차 분석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 = 1$). 반면, 사전 검사와 지연 사후 검사 간 및 사후 검사와 지연 사후 검사 간에는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0$).

표 6
과업중심 발음 지도 집단 사전·사후·지연 사후 발음 평가 이해가능성 교차분석

구분	빈도(%)		전체
	unintelligible	intelligible	
사전 검사	251 (53.63)	217 (46.37)	468 (100)
사후 검사	252 (53.85)	216 (46.15)	468 (100)
지연 사후 검사	184 (39.32)	284 (60.68)	468 (100)
$\chi^2(p)$	25.978a(0.000)***		

p<.05*, *p*<.01**, *p*<.001***

다음으로 과업중심 발음 지도 집단 내 발음 평가와 정확성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표 7과 같이 $\chi^2 = 13.782, p = .001$ 로 과업중심 발음 지도 집단 내 사전·사후·지연 사후 발음 정확성 평가 점수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 평가 모든 시기에서 정확성은 떨어짐을 볼 수 있으나, 지연 사후 평가로 갈수록 조금씩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표 7
과업중심 발음 지도 집단 사전·사후·지연 사후 발음 평가 정확성 교차분석

구분	빈도(%)		전체
	inaccurate	accurate	
사전 검사	353 (75.43)	115 (24.57)	468 (100)
사후 검사	317 (67.74)	151 (32.26)	468 (100)
지연 사후 검사	302 (64.53)	166 (35.47)	468 (100)
$\chi^2(p)$	13.782a(0.001)**		

p<0.05*, *p*<.01**, *p*<.001***

R통계를 통한 교차분석 사후검정 실시 결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16). 또한 사전 검사와 지연 사후 검사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그러나, 사후 검사와 지연 사후 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 = .33). 이 점을 미루어볼 때, 과업중심 발음 지도의 특성상 목표 언어(과생어 강세)를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수업을 운영한다는 면에서 눈에 띄게 명확하고 직관적인 향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학습 전보다 후에 학습자들의 과생어 강세 이해가능성 및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과업중심 발음 지도가 학습자들의 발음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 내 발음 평가와 이해가능성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과 같이 분석 결과 $\chi^2 = 12.339$, $p = .002$ 으로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 내 사전·사후·지연 사후 발음 이해가능성 평가 점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검사와 비교해볼 때, 사후·지연 사후 검사에서 이해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지연 사후 검사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표 8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 사전·사후·지연 사후 발음 평가 이해가능성 교차분석

구분	빈도(%)		전체
	unintelligible	intelligible	
사전 검사	219 (55.30)	177 (44.70)	396 (100)
사후 검사	189 (47.73)	207 (52.27)	396 (100)
지연 사후 검사	170 (42.93)	226 (57.07)	396 (100)
$\chi^2(p)$	12.339a(0.002)**		

$p < .05^*$, $p < .01^{**}$, $p < .001^{***}$

R통계를 통한 교차분석 사후검정 결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 = .058$). 그러나, 사전 검사와 지연 사후 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반면, 사후 검사와 지연 사후 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19$).

다음으로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 내 발음 평가와 정확성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와 같이 분석 결과 $\chi^2 = 79.059$, $p = .000$ 으로 정확성 또한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 내 사전·사후·지연 사후 발음 정확성 평가 점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전 검사와 비교해볼 때 사후·지연 사후 검사에서 더 높은 정확성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

R통계를 통한 교차분석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간 및 사전 검사와 지연 사후 검사 간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0$). 하지만 사후 검사와 지연 사후 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 = .887$). 이는 목표 언어와 규칙을 정확히 알려주고 이를 반복 연습하는 명시적 지도의 특성상 과업중심 발음 지도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보다 더 명확하고 즉각적인 피생어 강제 발음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 사전·사후·지연 사후 발음 평가 정확성 교차분석

구분	빈도(%)		전체
	inaccurate	accurate	
사전 검사	294 (74.24)	102 (25.76)	396 (100)
사후 검사	185 (46.72)	211 (53.28)	396 (100)
지연 사후 검사	188 (47.47)	208 (52.53)	396 (100)
$\chi^2(p)$	79.059a(0.000)***		

p<.05*, *p*<.01**, *p*<.001***

3) 통제 집단

마지막으로 통제 집단 내 발음 평가와 이해가능성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과 같이 분석 결과 $\chi^2 = 6.624$, *p* = .036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 집단 내 사전·사후·지연 사후 발음 이해가능성 평가 점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과 마찬가지로 사전 검사와 비교해볼 때 사후·지연 사후 검사에서 이해가능성 결과가 좀 더 높았다.

표 10
통제 집단 사전·사후·지연 사후 발음 평가 이해가능성 교차분석

구분	빈도(%)		전체
	unintelligible	intelligible	
사전 검사	63 (58.33)	45 (41.67)	108 (100)
사후 검사	45 (41.67)	63 (58.33)	108 (100)
지연 사후 검사	49 (45.37)	59 (54.63)	108 (100)
$\chi^2(p)$	6.624a(0.036)*		

p<.05*, *p*<.01**, *p*<.001***

그러나 R통계를 통한 교차분석 사후검정 결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 = .062). 또한 사전 검사와 지연 사후 검사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p* = .115), 사후 검사와 지연 사후 검사 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 = .68). 이와 마찬가지로, 통제 집단 내 발음 평가에 따른 과생어 강세 발음 정확성에서, 사전·사후·지연 사후 발음 정확성 평가 점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는 정확하고 이해가능한 발음 능력 향상을 통한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기 위해 적어도 발음 지도가 중등 영어 교육 과정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집단 간 이해가능성 및 정확성 능력 비교

1) 사후 발음 평가

사후 발음 평가 집단 별 이해가능성 교차분석 결과 $\chi^2 = 6.587$, $p = .037$ 으로 집단 별 이해가능성 사후평가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업중심 발음 지도 집단과 비교해볼 때,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후평가 이해가능성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아무런 발음 지도 처치가 없던 통제 집단의 이해가능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보다 높게 나왔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통제 집단 학습자 인원이 총 9명으로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해볼 때 현저히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이 나왔다고 판단이 된다.

표 11
사후 발음 평가 집단 별 이해가능성 교차분석

구분	빈도(%)		전체
	unintelligible	intelligible	
과업중심 지도 집단	252 (53.85)	216 (46.15)	468 (100)
명시적 지도 집단	189 (47.73)	207 (52.27)	396 (100)
통제 집단	45 (41.67)	63 (58.33)	108 (100)
$\chi^2(p)$	6.587a(0.037)*		

$p < .05^*$, $p < .01^{**}$, $p < .001^{***}$

그러나 R통계를 통한 사후검정 결과, 과업중심 지도 집단과 명시적 지도 집단 간($p = .127$), 과업중심 지도 집단과 통제 집단 간($p = .088$), 명시적 지도 집단과 통제 집단 간($p = .312$)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통제 집단의 표본 수가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해볼 때 현저히 낮아 집단 간의 보다 더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세 집단의 과생어 강제 발음 정확성 사후 평가를 살펴보면 $p = .000$ 으로 집단 별 정확성 사후평가 점수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해볼 때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이 사후 평가에서 정확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R통계를 통한 사후 검정 결과, 과업중심 지도 집단과 명시적 지도 집단 간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0$). 반면 과업중심 지도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 = .966$). 그러나, 명시적 지도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표 12
사후 발음 평가 집단 별 정확성 교차분석

구분	빈도(%)		전체
	inaccurate	accurate	
과업중심 지도 집단	317 (67.74)	151 (32.26)	468 (100)
명시적 지도 집단	185 (46.72)	211 (53.28)	396 (100)
통제 집단	74 (68.52)	34 (31.48)	108 (100)
$\chi^2(p)$	43.563a(0.000)***		

p<.05*, *p*<.01**, *p*<.001***

2) 지연 사후 발음 평가

세 집단의 과생어 강세 발음 이해가능성 지연 사후 평가를 살펴보면 $\chi^2 = 1.919$, *p* = .383으로 집단 별 이해가능성 지연 사후 평가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제 집단의 표본 수가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해볼 때 현저히 낮아 집단 간의 보다 더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후 검사 이후 2주라는 짧은 간격으로 지연 사후 발음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집단 간의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에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지연 사후 발음 평가 집단 별 이해가능성 교차분석

구분	빈도(%)		전체
	unintelligible	intelligible	
과업중심 지도 집단	184 (39.32)	284 (60.68)	468 (100)
명시적 지도 집단	170 (42.93)	226 (57.07)	396 (100)
통제 집단	49 (45.37)	59 (54.63)	108 (100)
$\chi^2(p)$	1.919a(0.383)		

p<.05*, *p*<.01**, *p*<.001***

다음으로 세 집단의 과생어 강세 발음 정확성 지연 사후 평가를 살펴보면 $\chi^2 = 29.483$, *p* = .000으로 집단 별 정확성 지연 사후 평가 점수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발음 평가 정확성 결과와 마찬가지로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이 두 집단과 비교해볼 때 정확성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R통계를 통한 사후 검정 결과 과업중심 지도 집단과 명시적 지도 집단 간 *p* = .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명시적 지도 집단과 통제 집단 간 *p* < .001로 동일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과업중심 지도 집단과 통

제 집단 간에는 $p = .758$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 또한 명시적 발음 학습 활동이 상대적으로 암시적인 과업중심 활동보다 학습자들의 과생어 강제 발음 정확성에 보다 더 명확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이 예상된다.

표 14
지연 사후 발음 평가 집단 별 정확성 교차분석

구분	빈도(%)		전체
	inaccurate	accurate	
과업중심 지도 집단	302 (64.53)	166 (35.47)	468 (48.1)
명시적 지도 집단	188 (47.47)	208 (52.53)	396 (40.7)
통제 집단	72 (66.67)	36 (33.33)	108 (11.1)
$\chi^2(p)$	29.483a(0.000)***		

$p < .05^*$, $p < .01^{**}$, $p < .001^{***}$

3. 이해가능성과 정확성 관계

학습자의 과생어 강제 발음 이해가능성과 정확성 간의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r = .286$ 로 두 변수 간에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즉, 강세의 정확성이 높을수록 이해가능성 점수도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5
이해가능성과 정확성 간의 상관관계

	이해가능성	정확성
이해가능성	1	
정확성	0.286**	1

$p < 0.05^*$, $p < 0.01^{**}$, $p < 0.001^{***}$

4. 정의적 태도 변화 분석

1) 사전·사후 설문지 집단 내 정의적 태도 변화

과업중심 발음 지도 집단은 표본 수가 30을 넘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고, 등분산 검정을 위해 Levene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모든 문항이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여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과업중심 발음 지도 집단에서는 11번(의사소통에 있어 영어 발음의 중요성) 문항에서 $t = -2.364$, $p = .023$ 으로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사전 응답 점수의 평균 3.77, 표준 편차는 1.038, 사후 응답 점수

의 평균 4.28, 표준편차는 .793로 사후 응답 점수가 사전 응답의 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실제 과업중심 발음 교육이 영어 학습에 있어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이해가능하고 정확한 영어 발음의 필요성 제고에 효과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6
과업중심 발음 지도 집단 11번 문항 사전·사후 설문응답 차이 비교

(N=39)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M) 표준편차(SD)	
Q11	사전	39 3.77 1.038	-2.364(0.023)*
	사후	39 4.28 .793	

p<.05*, p<.01**, p<.001***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도 표본 수가 30을 넘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고, 등분산 검정을 위해 Levene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7번, 8번 두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 모두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7번, 8번 두 문항에 대해서는 비모수 대응 표본 검정인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는 대응 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에서는 9번 문항(영어 발음 학습에 대한 흥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9번 문항에는 $t = -2.390, p = .02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전 응답 점수의 평균은 2.82, 표준 편차는 1.185이었고, 사후 응답 점수의 평균은 3.42, 표준편차는 .867로, 사후 응답의 점수가 사전 응답의 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과업 중심 발음지도와 비교해볼 때, 명시적 발음 지도를 통해 학습자들의 과생어 강세 발음의 정확성 및 이해가능성의 즉각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발음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예상된다.

통제 집단은 표본 수가 9로 사전·사후 각 문항 응답의 정규 분포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Shapiro Wilk 정규성 검정을 먼저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2번, 9번, 12번 문항만 정규 분포를 보였다. 세 문항 응답에 대한 Levene의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세 문항은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나머지 문항은 비모수 대응 표본 검정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모든 문항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떠한 발음 처치가 없던 통제 집단에서는 기존 교과수업만을 진행했기 때문에 발음에 대해 인지하고 생각을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 9번 문항 사전·사후 설문 응답 차이 비교

(N=33)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M)	표준편차(SD)	
Q9	사전	33	2.82	-2.390(0.023)*
	사후	33	3.42	

$p < .05^*$, $p < .01^{**}$, $p < .001^{***}$

2) 사후·심화 사후 설문지 집단 간 정의적 태도 변화

사후 설문 응답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규 분포를 보이고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는 2번, 9번, 12번 문항에 대해서는 일원배치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비모수 통계인 Kruskal-Wallis 검정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심화 사후 설문은 과업중심 발음 지도 집단과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에만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표본 수가 각각 30을 넘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고, Levene의 검정 결과 모든 선택형 문항에서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다. 이에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7개의 선택형 문항에서 발음 지도에 따른 심화 사후 설문 응답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발음 지도가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에는 실험 기간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심화 사후 분석 결과, 과업중심 발음 지도 집단에서 과업 자체에 대한 흥미와 더불어 영어 말하기에 자신감을 비춘 학습자가 절반 이상으로, 의사소통 과업이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과 관련해 발음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과업중심 발음 교수법이 학습자의 영어 발음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한 선행 연구(유효민, 2020; Gurzynski-Weiss et al., 2017)를 뒷받침한다. 또한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에서 발음 수업 자체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더불어 정확한 단어 강세의 중요성을 인지한 학습자가 절반 이상으로, 명시적 지도 또한 발음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규 영어 교육과정 내 강세 발음 학습 경험의 많지 않았던 한국 학습자들(정현성, 2017; 현수미, 2018)에게 발음 학습 자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과업중심 발음 지도와 명시적 발음 지도에 따른 한국 고등학교 학

생들의 발음 이해가능성과 정확성 변화를 평가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더 나아가 그들의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교육적 시사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업 중심 발음 지도 집단과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은 사후 및 지연 사후 검사에서 이해가능성과 정확성 측면 모두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더 나아가, 사후 및 지연 사후 검사에서 이해가능성에 대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정확성 측면에서는 명시적 발음 지도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발음 지도 유형으로서 명시적 발음 지도는 명확한 과생어 강세 규칙 소개와 목표 언어(과생어 강세)를 지속적으로 반복 연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발음 이해가능성 및 정확성 모두 향상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는 암시적 지도와 비교할 때 명시적 지도의 효과성을 주장한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박혜경, 2011; 유현지, 이은주, 2015; 이진영, 2017; Bae, 2014; Jang, 2015)와도 같다. 다시 말해, 한국 학습자의 발음 능력 향상에 있어 명시적 지도가 간과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위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명시적 발음 지도와 과업중심 발음 지도 중 어느 한 지도 방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두 방법을 적절히 조화하여 사용하는 복합적 발음 지도 방법이 추후 학습자들의 발음 능력 향상에 더욱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업중심 발음 지도 집단에서 지연 사후 평가가 사전 및 사후 검사에 비해 가장 큰 이해가능성 향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서의 발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따라서 복합적 발음 지도를 위해서는 기존 선행연구(Brumfit, 1984; Byrne, 1987; Yalden, 198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 단계엔 명시적 지도를 통한 정확성 및 언어 형태에 초점을 두고 점차 유창성 및 의사소통 기능에 기반한 과업중심 지도로 발전해나가는 수업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규칙을 명확히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내 목표 언어를 사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점진적으로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성공적인 의사소통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합적 발음 지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이해가능하고 정확한 발음 능력 향상을 위한 실제적 수업 설계와 그에 따른 적절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명시적 발음 지도라고 하더라도 탈문맥적인 규칙 설명 및 단순 반복 연습에서 벗어나 관련 영상 시청, 문장 속 발음 연습, 자기 평가가 가능한 발음 읽기 활동 등 학습자들의 흥미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과업중심 발음 지도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한 발음 능력 향상을 위해 목표 강세를 반드시 발화하면서도 의미에 초점을 두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제적 과업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에듀테크(EduTech) 시대를 맞이하여 멀티미디어 코스웨어를 활용해 명시적 내용이 자연스럽게 과업의 형태로 접목될 수 있는 수업 개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수준별 및 개별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자발적 추가

학습 또한 가능하다(최수영 외, 2010).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활동 자료와 방식들 외에도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더 다양한 수업 활동 설계와 자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세 변화 접미사에 따른 파생어 강세 발음 지도는 강세 박자 언어로서의 영어에 흔히 나타나는 초분절음을 한국 EFL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음으로써 발음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생어 강세를 지도하는 유형으로 교사가 중심이 되어 지식을 전달하는 규칙 설명과 반복 연습 등의 명시적 발음 지도 방법과 입력 쇄도, 입력 강화, 교체표현 제시 등을 활용하여 과업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과업중심 발음 지도 방법을 활용할 경우, 한국 EFL 학습자들의 단어 강세 발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한국 교실에서의 영어 발음 및 발화 교육에 어느 정도 일조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어 공교육을 통해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을 계발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 발음 지도는 영어 교육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참고문헌

- 강순자. (2005). *한국 대학생의 영어 파생어 강세부여와 인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강혜정. (2012). *초분절음중심 듣기수업이 고등학교 초급학습자의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교육부. (2022). *영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22-414호: 별책 14). 교육부.
- 김종훈. (2013). 영어 발음교육에 대한 예비 영어교사의 인식. *언어과학연구*, 65, 47-78.
- 김현아. (2017). *한국 EFL 대학생의 접미사 유형별 파생어 강세 규칙 습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도주영. (2006). *초분절음소 중심의 발음 지도가 중학생의 듣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문승재. (1997). 영어와 국어 발음의 비교분석: 영어발음교육을 위한 제언. *인문논총*, 1(7), 55.
- 민다영, 정현성. (2018). 읽기 발화의 유창성이 영어 전설모음의 발음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외국어교육연구*, 32(2), 153-180.
<https://doi.org/10.16933/sfle.2018.32.2.153>
- 민찬규. (2002). 형태 초점 의사 소통 접근 방법: 교수법적 특징과 영어교육에의 적용 방안. *Foreign Languages Education*, 9(1), 69-87.

- 박주경. (1998).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발음지도.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3(2), 25-44.
- 박혜경. (2011). *팝송을 활용한 명시적 암시적 발음지도가 고등학생의 발음능력과 듣기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배두본. (2002). *영어교육학* 총론. 한국문화사.
- 신현옥. (1999). *음절과 형태소의 분석에 의한 영어 강세와 리듬 지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안현기. (2008). 영어 발음의 정확성(accuracy)과 유창성(fluency) 구분에 대하여.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1, 84-96.
- 양형욱, 민남숙. (2005).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영어 발음지도 방안. *영어교과교육*, 4(1), 113-138.
- 유현지, 이은주. (2015). 영화를 활용한 명시적, 암시적 발음 지도가 중학생의 영어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0 (4), 112-143.
- 유효민. (2020). *과업 중심 발음 교수법이 중학생의 영어 발음 능력 및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용모. (2002). *영어강세정도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 음향분석에 의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진영. (2017). *명시적 암시적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한 예비 영어교사의 신념*.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전승숙. (2008).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영어 협동 수업이 초등학생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정미라. (2010). 우리나라 영어교사의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한 고찰. *영어교과교육*, 9(1), 179-202. <https://doi.org/10.18649/jkees.2010.9.1.179>
- 정현성. (2017).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과 현 교과서를 통해 본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한 진단. *현대문법연구*, 96, 191-212. <https://doi.org/10.14342/smog.2017.96.191>
- 천태은. (1997). *초분절음소의 발음중심 듣기 학습이 영어 듣기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수영, 문영숙, 김선혜, 이현진. (2010). 멀티미디어 코스웨어를 이용한 읽기 지도. *영어교과교육*, 9(3), 299-323. <https://doi.org/10.18649/jkees.2010.9.3.299>
- 최윤정. (2005).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자음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현수미. (2018).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발음 교육 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Bae, C. (2014). *A study on pronunciation teaching: Explicit instruction vs. implicit instru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 University.
-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Longman.
- Brumfit, C. (1984). *Communicative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The roles of fluency and accu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yrne, D. (1987). *Techniques for classroom interaction*. Longman.
- Byun, J. (2014). Study on Korean EFL learners' stress shift realizations in three suffix patterns: Stress-moving, stress-carrying and neutral suffix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orking Papers in English Linguistics and Language*, 12, 1-16.
- Celce-Murcia, M., Brinton, D. M., & Goodwin, J. M. (2010). *Teaching pronunciation: A course book and reference guide*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ung, H. (2010). Redefining lingua franca core for Korean learners of English.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2(4), 129-134.
- Derwing, T. M., & Munro, M. J. (1997). Accent, intelligibility, and comprehensibility: Evidence from four L1s. *Studi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9(1), 1-16. <https://doi.org/10.1017/S0272263197001010>
- Derwing, T. M., & Munro, M. J. (2015). *Pronunciation fundamentals: Evidence-based perspectives for L2 teaching and research*.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horbany, Z. (2011). EFL learners' awareness of stress-moving vs. neutral suffixes. *English Language Teaching*, 4(4), 146-153. <https://doi.org/10.5539/elt.v4n4p146>
- Gurzynski-Weiss, L., Long, A. Y., & Solon, M. (2017). TBLT and L2 pronunciation: Do the benefits of tasks extend beyond grammar and lexi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9, 213-224. <https://doi.org/10.1017/S0272263117000080>
- Jang, J. (2015). *Effects of explicit and implicit instruction and individual differences on the acquisition of second language pronunciation by Korean young learners of Englis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Jenkins, J. (2006). The spread of EIL: A testing time for testers.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60(1), 42-50. <https://doi.org/10.1093/elt/cci080>
- Mangiafico, S. S. (2023). rcompanion: Functions to support extension education program evaluation version 2.4.30. Retrieved on August 15, 2023, from <https://CRAN.R-project.org/package=rcompanion>
- Mora, J. C., & Levkina, M. (2017). Task-based pronunciation teaching and

research.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9(1), 381-399.
<https://doi.org/10.1017/S0272263117000183>

Munro, M. J., & Derwing, T. M. (1995). Foreign accent, comprehensibility, and intelligibility in the speech of second language learners. *Language Learning*, 45(1), 73-97. <https://doi.org/10.1111/j.1467-1770.1995.tb00963.x>

Nunan, D. (1989). *Designing tasks for the communicative classro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R Core Team (2023).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version 4.3.0 [Computer Software]. Retrieved on August 15, 2023, from <https://www.R-project.org/>

Skehan, P. (1996). A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task-based instruction. *Applied Linguistics*, 17(1), 38-62. <https://doi.org/10.1093/applin/17.1.38>

Teschner, R. V., & Whitley, M. S. (2004). *Pronouncing English: A stress-based approach*. Georgetown University Press.

Yalden, J. (1983). *The communicative syllabuses: Evolution, design and implementation*. Pergamon Press.

Yavaş, M. (2020). *Applied English phonology* (4th ed.). Blackwell Publishers.

부록 1

발음 사전·사후·지연 사후 평가지 단어 목록

발음 사전 평가	발음 사후 평가	발음 지연 사후 평가
1. freedom	1. symbolic	1. creativity
2. tutorial	2. friendship	2. player
3. activity	3. creativity	3. essential
4. generation	4. personal	4. concentration
5. economic	5. communication	5. alcoholic
6. meaningful	6. possibility	6. responsibility
7. sociality	7. official	7. official
8. millionaire	8. operation	8. thankful
9. geographic	9. Chinese	9. cooperation
10. education	10. financial	10. honorific
11. Japanese	11. memorial	11. employee
12. influential	12. growth	12. financial

부록 2
사전·사후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평소 발음 영어 공부에 대해 느껴왔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설문 응답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앞으로의 영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진지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질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영어 발음 실력이 좋은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영어 말하기에 자신이 있다.	1	2	3	4	5
3	나는 영어 말하기 시 발음이 틀릴까봐 초조하거나 불안해진다.	1	2	3	4	5
4	내 영어 발음을 고치는 건 어렵다.	1	2	3	4	5
5	나는 나의 영어 발음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영어 발음이 서툴더라도 끝까지 말하고자 노력한다.	1	2	3	4	5
7	나는 영어 발음을 잘하고 싶다.	1	2	3	4	5
8	나는 영어 발음을 배우고 싶을 때가 있다.	1	2	3	4	5
9	나는 영어 발음 학습이 재미있다.	1	2	3	4	5
10	나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발음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1	영어 발음이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영어 발음에서 '원어민 같은 정확한 영어 발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3	영어 발음에서 원어민 같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영어 발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4	영어 발음 수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5	영어 발음수업은 교사의 직접적인 설명과 같은 명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1	2	3	4	5
16	영어 발음수업은 교사의 직접적인 설명이 없는 의미 위주의 수업을 중심으로 한 암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1	2	3	4	5

♥설문에 응해주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록 3
심화 사후 설문지

안녕하세요? 그동안 발음 지도 수업을 열심히 들어준 여러분들에게 진심의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한 발음 지도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설문응답은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향후 앞으로의 영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진지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질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영어 발음 실력이 좋은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영어 말하기에 자신이 있다.	1	2	3	4	5
3	나는 영어 말하기 시 발음이 틀릴까봐 초조하거나 불안해진다.	1	2	3	4	5
4	내 영어 발음을 고치는 건 어렵다	1	2	3	4	5
5	나는 나의 영어 발음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영어 발음이 서툴더라도 끝까지 말하고자 노력한다.	1	2	3	4	5
7	나는 영어 발음을 잘하고 싶다.	1	2	3	4	5

* 다음의 질문에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8. 수업의 장점 혹은 좋았던 점은?

9. 수업의 단점 혹은 아쉬웠던 점은?

10. 영어 발음학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게 있나요? 혹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설문에 응해주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48 영어교과교육 제22권 4호

적용가능 수준 (Applicable Levels): Secondary

장서연

대경중학교

(11177) 경기 포천시 소흘읍 봉솔로 23

Tel: (031) 541-1890

Email: jsyeon80@naver.com

정현성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Tel: (043) 230-3554

Email: hchung@knue.ac.kr

Received September 30, 2023

Revised November 13, 2023

Accepted November 25, 2023